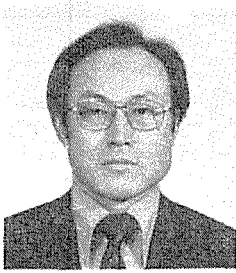


逆「오일쇼크」와 우리의 対応



辛 昇 哲

(漢陽大教授·경제학박사)

1. 序-危機의 특성

世界經濟는 1930年代를 고비로 하여 한 차례의 진통을 겪었으며, 지금 1980年代를 고비로 하여 또다른 진통을 겪고 있다. 1930年代의 不況이 過剩生産과 過小消費의 불균형에서 야기된 遊休施設과 높은 失業率을 특징으로 하는 實物經濟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면, 1980年代의 不況은 資本의 과잉수요와 과소공급에서 초래된 高金利와 外債累増을 특징으로 하는 貨幣經濟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0年代의 不況에 있어서는 자유방임 시대에서의 低物価下의 失業이 문제시되었으나, 80年代의 不況에 있어서는 복지국가시대에서의 高物価下의 失業이 問題視되고 있다.

80年代의 經濟不況은 선진공업국의 경제에 있어 成長의 추진력이 되고 있는 기술혁신 즉「슈퍼터」적인「이노베이션」의 지연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油價暴騰이라는 油類波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經濟의 內生的 요인과 外生的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그리고 油價引上이 거듭되면 될수록 石油地代(Oil Rent)가 「이노베이션」 地代를 잠식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外生變數가 內生的 요인을 압도함으로써 投資誘因이 격감되면서 경제불황은 더욱 더 가속화되어 왔다.

1970年代, 두차례에 걸친 油類波動으로 인하여 世界經濟는 高物價, 긴축政策, 高金利, 高失業이라는 격동을 겪어야 했으며, 아직도 그 치유가 제대로 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物價逆轉, 金利逆轉, 油價逆轉이라는 逆의 原理가 作用함으로써 불확실성은 더욱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實情이다.

2. 石油波動의 對內的 파급

石油價가 급등하자 石油 消費國들은 한편으로는 國內消費와 投資를 감소시키면서 油價上昇에 대비함으로써 경기후퇴를 가져오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油價引上이 과급적인 物價上昇을 일으킴으로써 두자리 숫자의 높은「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즉 不景氣下의 高物價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

높은「인플레이션」이 만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정책이 강행되었으며,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投資가 감소되어 成長이 둔화되는 한편, 賃金引上의 억제로 인하여 消費가 감퇴하는 등 景氣後退는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 특히 긴축정책에 의한 高金利정책으로 金利의 이중성이 不景氣를 가속화시키는 양면작용을 하게 되었다.

두자리 숫자의 高金利는 높은 金利부담으로

費用引上 效果를 가져옴으로써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한편, 資本의 限界效率를 低下시켜 投資誘因의 抑制作用을 함으로써 投資減少를 통한 不景氣를 촉발하였다. 말하자면 高金利「쇼크」가 작동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지나친 건축정책을 強行함으로써 資金梗塞상태를 유발하여 黑字倒産의 事例까지 초래할 수 있는 危險水位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油價引上으로 인하여 두자리 숫자의 높은「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한 건축정책은 高金利現象을 통하여「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성화시킨「슬럼프플레이션」을 야기 하였으며, 「슬럼프플레이션」은 또다시 두자리 숫자의 높은 失業率을 초래케 하였다.

油類節約의 效果로 인한 油價安定과 건축정책이 주효하여「인플레이션」이 한자리 숫자로 억제되고, 두자리 숫자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부양정책으로 금리도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자 이번에는 逆物價「쇼크」와 逆金利「쇼크」가 작동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자 높은 金利로 資金을 借入하였던 企業에 있어서 實質金利는 오히려 상승하여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物價下落이 오히려 企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逆物價「쇼크」가 나타났다. 그리고 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떨어져도 新規投資를 유발할 정도의 낮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短期資本의 下落幅이 컸을 뿐 長期資本은 여전히 높은 金利水準에 있으며, 또한 不況으로 가동율이 낮은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心理가 계속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金利引下의 投資促進效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國際金利보다도 낮은 金利를 適用한 결과 外資가 해외로 逆流하려고 하는 逆金利「쇼크」현상까지 유발되었다.

3. 石油波動의 對外的 波及

油價波動은 石油 生産國의 國際收支改善에 의한「오일달러」의 증가와 石油 消費國의 國際收支

惡化를 招來케 하였다. 先進工業國은 輸入을 抑制하기 위하여 보호장벽을 높이는 한편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전략을 強行하였다. 즉 對 中進國 規制論을 제기하면서 新保護主義를 강화하는 한편, 相互主義를 표방하면서 先進開途國의 보호장벽에 대하여 역습을 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先進工業國 相互間에도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무역전쟁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實物的 측면에서 본 國際交易關係는 수직적 무역마찰과 수평적 무역마찰이 복합적으로 심화되면서 축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환언하면 不況이 長期化될 수록 保護主義 성향도 강화되면서 世界貿易規模가 축소되어 감으로써 1980年度의 不況은 加速되어 왔다.

開發途上國들은 輸出을 확대하려고 努力하더라도 先進工業國의 保護주의에 부딪쳐 限界에 도달하며, 輸入代替에 치중하더라도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投資材는 오히려 증대하는 實情이어서 이 역시 限界에 도달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輸出上限은 계속 낮아지고 輸入下限은 오히려 높아짐으로써 國際收支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그 結果 外債는 누증되었으며, 더우기 國際高金利現象은 外債부담을 加重化시켜, 元利金 상환을 위한 外債가 발생함으로써, 급기야는 利子償還 不可 선언이나 外債償還 연체국이 증가하여 國際金融面에서의 위기가 가중되어 가고 있다. 화폐적 측면에서 본 國際協力關係는 開途國의 外債需要 격증현상과 先進工業國의 資金提供의 可能性, 償還期間의 短期化, 加算金利의 引上 등 借入조건 不利現象間에 마찰작용으로 악화경향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石油波動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高金利→高失業을 가져 왔고 對外的으로는 國際收支惡化→外債累增→金融恐慌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역경속에서 어떤 國家는 이에 成功的으로 대처하였고 또 다른 國家는 失敗함으로써, 「오일쇼크」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따라 國家間의 우열을 판가름 하였으며, 이러한 우열에 따른 國家間의 經濟的 格차의 확대는 또 다른 국제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대처한 國家들은 유류절약, 對OPEC 수출확대, 國內市場 보호, 代替「에너지」개발투

자, 高度技術産業의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失敗한 國家들은 무리한 成長政策의 不實, 輸入需要의 증대, 外債의 상승적 累增, 장기침체로 인한 貧困의 가속화 현상만을 가져 왔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對中東進出으로써 成功인 대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外債가 크게 增大하였다는 면에서 본다면 再考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4. 石油價引下의 明暗

石油 消費國들의 成功인 대처 즉 유류절약과 代替「에너지」開發은 石油需要를 감소시켰으며, 이에 反하여 OPEC諸國은 「오일·달러」를 이용한 개발사업의 강력한 추진이나 一部國家의 戰費調達을 위한 생산증가 그리고 高油價에 의한 非OPEC산유국들의 生産促進 등으로 石油供給은 과잉상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공급과잉상태가 상당한 期間 지속되고 난 지금, 드디어 油價引下 競争이 促發되기에 이르렀다.

현시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이러한 引下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배럴당 29달러, 25달러 또는 20달러까지 보고 있으나 29달러선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다. 下落現象이 1~2年이라는 일시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6年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 공통적 見解가 없으나 80年代 後半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油類節約 조치의 누적적인 波及效果와 새로운 産油國들의 供給增加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下落現象이 小幅의으로 長期間 지속할 것이냐? 또는 大幅의으로 短期에 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大幅 短期的 下落은 커다란 충격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며 小幅 長期的 下落은 景氣回復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短期的 予測의 問題 이외에도 油價下落이 世界經濟에 끼칠 效果를 놓고 肯定과 否定의 兩論이 대립하고 있다.

肯定論 즉 밝은 쪽으로 보는 견해는 物價下落 → 消費支出 → 投資促進 → 景氣回復 → 國際收支改善이라는 善循環의인 태도이다. 油價下落을 租

稅「리베이트」와 같은 것으로 보며, 이것은 個人의 任意處分所得(Discretionary Income)을 증대시키며, 衝動品目(Impulse Item)에 대한 支出증가로 消費先導에 의한 景氣回復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이 때에 遊休施設의 가동과 실직자의 就業으로 景氣가 回復되면서 漸次 資本支出이 增大하는 한편, 油價가 長期的 安定的 低價를 지속할 것이라는 확신아래 「인플레이션」 대책보다는 失業対策으로서의 부양책을 本格的으로 實施함으로써 好況으로의 進入도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수지도 改善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反하여 否定論 즉 어두운 쪽으로 보는 견해가 곧 逆「오일·쇼크」이다. 逆「오일·쇼크」 즉 石油價引下의 악영향으로서는 石油輸出國들의 「오일·달러」減少로 인하여 對「OPEC」輸出이 減少하는 한편, 「OPEC」諸國은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 既貸出 되었던 「오일·달러」를 回收함으로써 國際金融危機가 초래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油價가 대폭적으로 低下될 경우 代替에너지開發 效果를 크게 상쇄시킬 것이라는 것 등을 들고 있다.

5. 逆「오일쇼크」의 肯定效果 提高方案

石油價引下로 인한 직접적인 肯定的 效果는 物價下落과 國際收支改善이다. 이러한 物價下落과 國際收支改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國際經濟的 環境이 가져다 준 큰 혜택인 것이다. 問題는 이 혜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對中東進出로 인하여 外換保有高가 격증함으로써, 外換「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을 당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外製 과자, 酒類 및 기타 消費財 輸入에 어렵게 획득한 값비싼 外貨를 낭비하였던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될 것이다.

物價下落은 國際競爭力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石油價引下로 인한 物價下落은 모든 國家에게 공통적으로 끼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國際競爭力에의 기여도는 別無하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物價下落의 效果와 國際競爭力의 提高는 다른 각도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

라의 경우 物價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는 ① 外生變數인 國際原資材 價格 ② 政策變數인 換率과 金利 ③ 特別消費稅 ④ 公共料金 ⑤ 農産物 作況 ⑥ 技術革新에 따른 生産性 ⑦ 賃金上昇率 ⑧ 景氣指標 등을 들 수 있다. 最近 그리고 앞으로의 物價安定은 주로 石油價引下, 低金利, 特別消費稅引下, 公共料金억제, 不景氣지속, 低賃金上昇率 82年度豊作등 復合的 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國民經濟의 成長原動力인 技術革新에 따른 生産性向上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나 長期安定的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石油價引下를 國內의 과급적 가격인하에 連動시키기 보다는 租稅「리베이트」형태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國民經濟의 生産力을 提高시킬 基金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생산시설의 現代化를 통하여 物價를 下落시키고, 物價下落으로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고, 國際競爭力의 提高로써 國際收支를 改善시키는 長期的 접근방법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내생적인 國際競爭力 提高效果를 外生的으로 상쇄시키는 國際競爭力 약화효과가 있다. 즉 石油價引下는 상대적으로 美國 「달러」를 強勢通貨로 만들고, 美貨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貨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強勢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輸出競爭力은 低下하게 된다. 油價가 引下된 만큼 對外支拂이 減少됨으로써 그만큼 國際收支은 改善된다. 그러나 美 「달러」가 強勢를 지속한다면 이러한 國際收支改善效果는 國際競爭力低下效果에 의하여 상쇄되어 버릴 것이다.

國際競爭力의 제고

最近에 와서 美國의 「달러」는 對外流出로부터 國內로 逆流함으로써 크게 強勢를 보여 왔는데, 그 요인들로서는 ① 美國의 긴축정책에 따른 高金利로 인한 金利差 유입 ② 美國의 「인플레이션」억제와 經常收支改善에 따른 貿易差 유입 ③ 美國이라는 經濟大國이 가지고 있는 위기에 강한 힘을 믿는 未來指向的 유입 ④ 西歐 또는 日本通貨의 상대적 弱勢와 이들 諸國의 內政不安에

따른 安全指向的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要因들 중에서 美國의 高金利 政策과 기타 先進工業國의 政情은 可變的일지라도 상당기간 동안은 현상이 유지될 것이며, 美國經濟의 基礎的 조건인 貿易差유입과 미래지향적 유입은 상향적 불변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美國의 「달러」는 계속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國際競爭力 提高노력은 더욱더 強化되어야만 國際收支改善效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輸出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① 國際需要規模를 좌우하는 景氣상태와 外國政府에 의한 보호무역의 정도를 나타내는 保護度 등 통제할 수 없는 外生的 환경변수 ③ 國民經濟力에 의하여 결정되는 外換時勢와 通貨需給이나 또는 成長政策 및 安定政策의 종속변수인 金利水準과 같은 政策的으로 一定한 即度內에서 統制 가능한 政策變數 ③ 研究開發에 의하여 좌우되는 技術水準이나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임금수준과 같은 정책적 意志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對內的 知性變數등이 있다. 輸出을 확대하기 위해서, 對外的 環境變數는 不變的 常數로서 조정할 수 없고, 통화적 政策變數는 일시적으로만 일정한 한도내에서 低評價와 低金利에 의한 輸出 補助的 조치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對內적 知性變數는 政策意志와 國民協調로써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生産성증가에 따른 物價下落 효과에 의하여, 국제경쟁력을 提高시키는 上向的 可變變數로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이며 他意的으로 주어진 소극적인 國際收支 改善效果보다는 長期的이고 自意的으로 쟁취하는 적극적인 國際競爭力提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國際競爭力提高 方向을 低賃金競争으로부터 生産力競争으로, 價格競争으로부터 品質競争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油價引下로 인한 수동적인 肯定效果를 提高시키는 방안은 이 肯定的 效果를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物價下落效果와 國際收支改善效果를 國際競爭力提高를 위한 方法에 집중 활용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앞으로는 開途國型 競争類型에서 벗어나 先進國型 競争類型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 逆「오일쇼크」의 否定效果 相殺方案

石油價引下로 인한 間接적인 否定的 效果는 對「OPEC」수출 감소와 國際金融危機의 發生可能性이다.

石油價引下로 石油輸出國들의 外換事情 즉 「오일 달러」는 減少하지만, 반대로 石油輸入國들의 石油代錢은 그 만큼 減少하게 된다. 우리의 立場에서 본다면 「제로·섬」(Zero-Sum)의 原理가 作用하기 때문에 對 石油輸出國 輸出을 對 石油輸入國 輸出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나 問題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환언하면 兩輸出市場에 대한 商品構成이 다르고 交易形態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환시킬 수 없다.

對 先進工業國 市場은 輕工業製品을 위주로 하는 商品貿易이지만, 對「OPEC」市場은 重化學工業製品 및 建設工事を 위주로 하는 用役貿易인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선진공업국의 보호도도 높고, 開途國의 競争도도 높으며, 또한 國內의 産業構造政策面에서 보더라도 斜陽度가 크기 때문에 國民經濟에의 成長기여도가 작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國際競爭力도 있고, 未來指向의 成長産業이기 때문에 成長기여도가 아주 크다.

最近에 와서 對中東進出은 이제 斜陽化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다. 따라서 對「아프리카」進出으로서 이를 상쇄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도 한다. 물론 중전의 단순노동에 의한 量的進出에는 限界가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숙련노동, 「플랜트」, 重化學工業製品 등 質的進出을 위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아프리카」에서도 新規市場을 개척해야만 할 것이다.

石油輸出國들은 油價引下로 「오일 달러」가 減少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며 「低價·大量販賣」전략으로 「오일 달러」의 절대액은 크게 줄어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벌려놓은 開發事業이나 國際力강화를 위한 武器導入事業을 中斷할 수 없기 때문이다. 石油輸出國들은 「오일 달러」가 減少되면

중전의 貸與國立場으로부터 既貸與金の 回收國으로 전환하여 국제유동성을 감소시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石油輸入代錢이 경감된 先進工業國에서는 資金의 여유가 발생하게 되고, 後進開途國에서는 資金需要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國際金融問題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80年代 經濟危機는 通貨金融面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30年代에는 國際收支 調整을 위한 보호조치와 平價切下競争으로 實物 停滯現象을 가져 왔다면, 80年代에는 國際流動性 不足을 위한 外債借入과 보호조치로 流動性停滯現象을 가져 올 危險性이 크다. 이러한 危險性은 계속 尙 存할 뿐만 아니라 오호려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後進開途國의 外債需要는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油價引下도 下落될 性質의 것이 아니며, 先進工業國이 다소의 流動性이 油價下 落으로 증대했다 해서 이것을 外債로 貸與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유동성 不足은 과다하고, 유동성 過剩은 과소한 矛盾的 마찰현상이 촉발될 가능성이 점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相互依存度가 높고, 相互間 協力關係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高度한 電子社會로의 發展으로 정보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기 때문에, 모든 國家는 현명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7. 結 - 第3의 「오일쇼크」

油價引下가 가져올 총체적인 肯定效果와 否定效果에 있어서 즉 樂觀論과 悲觀論中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오직 得의 效果를 提高시키고 失의 效果를 감퇴시킴으로써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오일 쇼크」와 逆「오일 쇼크」는 石油需要와 供給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不均衡度가 작으면 價格의 變動幅도 작을 것이며, 不均衡度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폭으로 價格이 上昇함으로써 世界經濟를 위기에 몰아 넣은 것이 「오일쇼크」였었다. 「오일 쇼크」에 있어서 得은 石油生産輸出國의 전유물이었으며, 失은 石

油輸入消費國에게만 귀속되었었다. 石油輸出國은 得의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감축과 가격상승을 계속하여 왔고, 石油輸入國은 失의 극소화를 위하여 石油消費節減과 代替「에너지」開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이번에는 石油供給이 需要보다 큰 반대방향의 不均衡이 발생함으로써 逆「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逆「오일 쇼크」에 있어서의 失은 石油輸出國이며, 石油輸入國에 있어서는 得과 失이 共存한다. 石油輸出國은 失을 極少化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石油輸入國은 得을 提高하고 失을 감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石油輸出國은 支出要求를 감축시키면서 石油生産을 줄일 것이며, 石油輸入國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石油需要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면 逆「오일 쇼크」는 다시 「오일쇼크」로 역전되어 第3의 「오일 쇼크」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제3의 「오일 쇼크」가 없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발생할 可能性은 있다. 80年代의 世界經

濟危機는 제3차 「오일 쇼크」와 더불어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石油價가 不均衡度를 훨씬 초월하여 대폭적으로 引下된다면, 限界油田의 閉鎖를 促進시킴으로서 第3次 「오일 쇼크」를 그 만큼 앞당기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油價가 引下되었다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油류절약을 強行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에너지 어카운턴시 (Energy Accountancy)를 통하여 「에너지·제로」(Energy-Zero)成長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石油, 석탄, 原子力 이외의 또다른 제4의 「에너지」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産業革命은 動力費用을 절감하는 신동력원을 발견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제4의 저렴한 「에너지源」의 발견은 80年代의 위기를 극복하고, 「케인즈」經濟學을 극복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克服하면서, 새로운 經濟學에 의하여 제4의 産業혁명을 일으킴으로써, 世界經濟에 또다른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

近刊 石油圖書案内

國內에서 唯一하게 發刊되는 國內外石油資料의 集大成

83年版 石油年報

- 大韓石油協會 · 企劃部 -